

동아꿈나무재단 출연금 현황

2004년 7월 19일까지, (단위: 원)

Table with 3 columns: 성명(희수), 기탁연월, 출연금. List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항일독립운동가 박구진 선생 아들 박원재 씨

“애국지사 후손 도와달라” 1억 선뜻 기탁

박원재(56) 원경식품우리집 사장은 지난해 동아꿈나무재단에 성금 1억 원을 선뜻 내놓으면서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돈이 생기면 형편이 어려운 애국지사 후손들을 돕겠다고 다짐해 왔는데 11년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11년 동안 받은 보훈연금과 그동안 사업을 통해 번 돈을 모아 1억 원을 마련했다. 그는 항일독립운동가 박구진(1881~1951) 선생의 막내아들이다.

동아일보 보도로 부친 명예 회복

선생은 1994년 8월 본보의 보도로 인해 항일독립운동가로 인정받았다. 평남 성천군 태생인 선생은 1909년부터 항일운동을 벌이다 1919년 일본 경찰에 체포돼 15년형을 선고받고 평양형무소에서 12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 선생은 6·25전쟁 중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박 사장은 전쟁이 끝나고 독립운동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시작되자 부친이 공적을 인정받기를 바랐으나 증거자료를 찾지 못했다. 그는 본보에 부탁하고 나서 찾아와 사연을 호소했다. 본보는 1994년 8월 16일자에 ‘항일운동 선진 기록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선생의 사연을 보도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기사를 보고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해 일주일 만에 평양형무소에 조선충독부에 율린 박 선생에 대한 ‘가출옥 서류’를 발견했다.

본보는 같은 해 8월 23일 박 사장이 묵은 한을 씻어



박원재 씨 서신덕 씨 고양삼영 씨

내게 됐다든 사연을 전했다. 선생은 이듬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고 1996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박 사장은 “부친 서훈 10년째 되는 해에 독립후손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가족과 약속했는데 사업이 어려워 1년간 미루게 됐다”며 “앞으로 ‘박구진장학재단’을 만들어 힘든 생활을 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100회 이상 익명의 기부자도

동아꿈나무재단을 향한 아름다운 손길은 요즘도 이어지고 있다. 김윤철 관악문화원 부원장, 익명의 기부자 등 2명은 이미 100회 이상 기부를 했다.

가족들의 뜻을 받들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후손을 위해 선뜻 기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서신덕(66·주부) 씨는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20년간 수차례 장학금을 냈다. 1987년 작고한 어머니의 “불우 청소년을 도와줘라”는 유언에 따라 어머니의 1주기, 5주기, 10주기 때 본보에 각각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서 씨는 올해 20주기를 앞두고 최근 100만 원을 또 기탁했다.

지난해 8월 97세인 어머니 강우금 씨를 잃은 정중환 씨는 모친이 평소 자녀들이 준 용돈과 교통비를 모은 돈 500만 원을 고스란히 써주고 재단을 찾았다. 어머니가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돈을 쓰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다.

“어머니 유지” 20년간 꼬박 장학금

포스코 수석연구원 강태욱 씨는 1985년 아버지의 권유로 결혼비용을 절약해 장애학생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한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2400여만 원을 기부했다. 2005년 12월에는 강 씨의 부인 최혜선 씨가 딸이 대학에 합격하자 새로운 출발을 의미 있게 하려는 뜻에서 딸의 이름으로 13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한편 2000년 4월 100만 달러(당시 약 10억 원)를 기탁했던 양삼영 씨는 2004년 폐 수술을 받은 뒤 일본 도쿄에서 요양하다 지난해 12월 84세를 일기로 숨졌다.

양 씨는 15세이던 1937년 동아일보 문선부에 견습생으로 들어와 3년 뒤 동아일보 기자들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생활을 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미국에 정착해 금융투자사를 만들어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동아일보에 진 빚을 갚고 싶다며 2000년 동아꿈나무재단에 거액을 기탁했고 재단은 본인의 뜻에 따라 ‘양삼영 기금’을 만들어 2001년부터 독도연구보존협회에 매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인재양성 기금’ 100만 원서 출발 116억 ‘거목’으로

청소년 장학금·각종 연구작년 5억1491만 원 지원

올 6월 1일 출범 22주년을 맞는 동아꿈나무재단은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불우청소년 돕기 장학재단이다.

6·25전쟁 당시 피그러진 냄비 하나만 들고 월남했던 농부 오달근(1985년 작고) 씨가 재단의 씨앗을 뿌렸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했던 오 씨는 1971년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인 2020년부터 가난한 영재들을 위해 씨 달라”며 본보에 100만 원을 내놓았다.

본보는 1985년 3억 원을 모아 재단을 출범시켰다. 이 기금에는 1974년 유신정권의 광고탄압 사태 때 독자 1만여 명이 보낸 격려광고 성금 1억 20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불의를 꾸짖는 국민들의 민주정신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의 발로였다.

1986년엔 장학사업가 권희종(94) 씨가 “육영사업에 씨 달라”며 3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기탁했다. 권 씨뿐만 아니라, 올 3월까지 모두 268명이 장학기금 기탁에 동참했다. 피담 흘려 마련한 재산을 나라의 장래를 위해 뜻 있게 써 달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가 장학기금에 담겨 있다.

발족 당시 3억 원이었던 기금은 2004년 7월 현재 112억4900여만 원으로 불어났다. 이후 올 3월

까지 기탁된 성금 4억4200여만 원을 운영한 자금도 7월 재단 기금으로 편입된다.

동아꿈나무재단은 지난해 5억1491만 원을 불우 청소년과 각종 연구기금 등에 지원했다.

불우청소년 359명이 장학금 1억9450만 원을 받았다. 재단은 국내 최고 권위의 독도 연구단체인 독도연구보존협회 등 학술연구비에 6500만 원, 18개 종교교의 시설 확충에 1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청소년 선도, 장애학생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쳤다.

재단은 또 장애학생을 위한 안내서 제작, 한센인 시설 지원, 소년원과 종교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책자 기증 사업도 펼치고 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Table with 3 columns: 성명(희수), 기탁연월, 출연금. List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Table with 3 columns: 성명(희수), 기탁연월, 출연금. List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Table with 3 columns: 성명(희수), 기탁연월, 출연금. List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Table with 3 columns: 성명(희수), 기탁연월, 출연금. List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2004년 7월 이후 동아꿈나무재단 기탁자 현황

2007년 3월 27일 현재, (단위: 원)

Table with 3 columns: 성명(희수), 기탁연월, 기탁금. Lists donors and their contribution amounts.

Large advertisement for Santa Cruise featuring cruise ship images, travel packages to Alaska and Europ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antacruise.